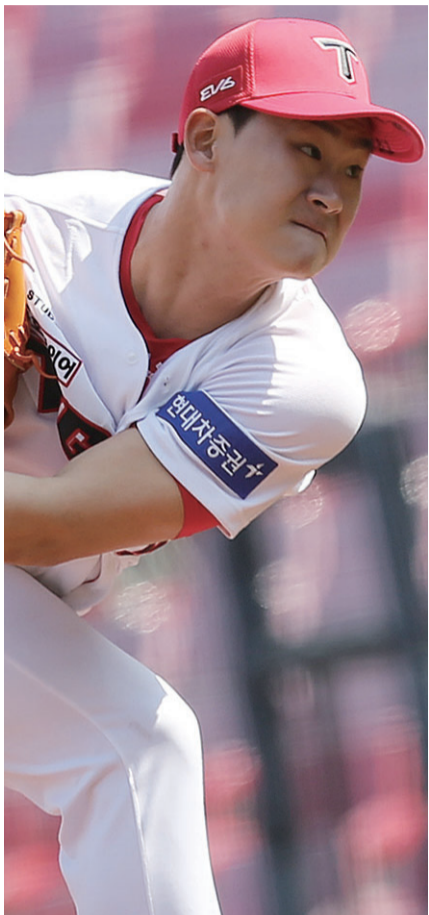


‘ERA 0’ KIA 광도규, 개막 엔트리 깜짝 승선할까

평균자책점



KIA 타이거즈 '좌완 루키' 광도규가 지난 19일 두산전에서 역투하고 있다.

KIA타이거즈제공

시범경기 5경기서 피안타 1개 두산 김재환 등 강타자 봉쇄 최고 구속 148km... '배짱투' 김 감독 "경기 운영 능력 갖춰"

KIA, 롯데와 최종전 6-7패



KIA타이거즈 '좌완 루키' 광도규가 2023 KBO 시범경기서 연일 호투를 선보이며 개막 엔트리 기대감을 키웠다. 광도규는 김기훈, 김대유, 김유신, 이준영, 최지민 등과의 좌완 불펜 경쟁에서 가장 뛰어난 투구를 펼쳤다.

광도규는 시범경기 다섯 차례 구원 등판해 4이닝 1피안타 3볼넷 2탈삼진을 기록했다. 5경기 이상 등판한 좌완 불펜 중 유일한 평균자책점 0.00이다.

우완을 통틀어도 5경기에 나선 박준표(5경기 3.1이닝)와 더불어 유이다. 좌완 불펜 경쟁자 김대유(6경기 5.1이닝 평균자책점 10.13), 김기훈(5경기 9이닝 평균자책점 3.00), 최지민(6경기 7.2이닝 평균자책점 2.35), 이준영(6경기 5이

닝 평균자책점 1.80), 김유신(3경기 3이닝 평균자책점 0.00) 과 비교해 돋보이는 활약이다.

광도규는 지난 13일 한화전에서 8회초 구원 등판해 문현빈을 뜯고, 이원석과 오선진을 땅볼로 잡아내며 삼자범퇴로 출발했다. 15일 키움전에서는 8회말 구원 등판해 선두 타자 장재영에게 볼넷을 내줬으나 박찬혁을 뜯고로 잡아냈다. 이어 김건희의 투수 땅볼에서 송구 실책을 범하며 1사 1·2루 득점권 위기를 맞았으나 김시양, 송재선을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정리했다.

19일 두산전에서는 4회초 1사 구원 등판해 상대 중심 타선을 요리했다. 허경민과 김재환을 모두 땅볼로 6구 만에 정리했다.

21일 LG전에서는 첫 홀드를 기록했다. 5회초 2사 1·2루에서 구원 등판해 서건창에게 풀카운트 승부 끝 볼넷을 내주며 만루 위기에 놓였지만 문성주를 땅볼로 잡아내며 위기 관리 능력을 선보였다.

시범경기 마지막 등판인 24일 SSG전에서도 위기 관리 능력을 자랑했다. 9회초 구원 등판해 선두 타자 김강민에게 안타, 김성현에게 볼넷을 내주며 무사 1·2루

가 됐으나 후속 타자 최경모에게 병살타를 유도했다. 이어 대타 조형우를 땅볼 처리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2023 신인 드래프트 5라운드(전체 42번) 지명으로 입단한 광도규는 지난해 11월 제주 마무리훈련 캠프에서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퓨처스팀 함평 스프링캠프에서도 투구 완급 조절과 움직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광도규는 투심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커브는 간간히 구사한다. 구종이 단순하지만 역동적인 투구 폼으로 상대 타자를 요리한다. 스리쿼터와 사이드암 사이에서 던지고 공의 궤적도 위협적이다.

구속 역시 빠른 편이다. 지난 11일 자체 연습경기에서 투심 패스트볼 최고 구속 148km, 커브 최고 구속 132km를 찍었다. 접하기 힘든 투구 폼에 구속과 궤적까지 갖춰 중심 타자들도 까다로워하는 상대다.

광도규는 지난 11일 자체 연습경기에서 4회초 구원 등판해 소크라테스와 황대인, 김석환의 중심 타선을 모두 땅볼 처리했다. 이날 호투로 김중국 감독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광도규는 1군 엔트리에 포함돼 시범경기 실전 기회를 부여받았

고, 시범경기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김중국 감독은 시범경기 돌입 후 인터뷰에서 "광도규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제구가 강점이었고, 싸움닭 스타일이다"며 "공의 움직임도 좋고 경기 운영 능력도 갖췄다. 예상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 올해 1군에서 활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6일 출사표 인터뷰에서도 "작년에는 필승조가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올해는 좌완 불펜이 훨씬 좋아졌고, 전원 필승조의 느낌으로 전력이 강화됐다"며 "장현식 합류와 정해영의 컨디션 회복 전까지 좌완 불펜들이 더 역할을 잘 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배짱투로 김중국 감독의 마음을 사로잡은 광도규가 과연 개막 엔트리에 포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KIA는 28일 롯데와의 마지막 시범경기에서 선발투수 임기영(3이닝 7피안타 5탈삼진 4실점)과 마무리투수 정해영(0.2이닝 2피안타 2실점)의 컨디션 난조로 6-7 역전패를 당했다. KIA는 이날 패배로 5승 2무 6패, 공동 6위로 시범경기를 마무리지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여주시청 육상 김은미, 인천국제하프마라톤 우승

1시간14분57초 기록

여주시청 육상팀 김은미가 2023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28일 전남육상연맹에 따르면 여주시청 김은미는 지난 26일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부에서 1시간 14분 57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선수 약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국내 엘리트 부문(하프코스)과 마스터스 부문(하프코스·10km코스), 5km 건강달리기 부문으로 나눠 열렸다.

김은미는 국제·국내 엘리트 부문에 참가해 인천문학경기장을 출발해 캠퍼스타

운역, 송도국제대로, 동막역사거리, 인천문학경기장 동문 사거리를 거쳐 인천문학경기장으로 돌아오는 21.095km 하프코스를 1시간14분57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김은미에 이어 임경희(삼척시청)가 1시간18분01초로 2위, 김미정(전북체육회)이 1시간19분55초로 3위를 기록했다.

심귀철 여주시청 육상팀 코치는 여자 국내엘리트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김용주 전남육상연맹회장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은미 선수에게 축하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 거둬주길 바란다"며 "운동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여주시청 육상팀 김은미가 지난 26일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여자부에서 1시간14분 57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 당구 서서아·장문석, 베스트마킹 후원 받는다

3년간 후원 계약 체결

전남을 대표하는 포켓 당구 선수 서서아와 장문석(이상 전남당구연맹)이 베스트마킹의 후원을 받는다.

전남당구연맹(회장 조호석)은 지난 25일 순천시 올림픽기념관 3층 대회의실에서 베스트마킹(대표 안용석)과 후원협약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서아와 장문석 등 2명의 선수가 3년 동안 베스트마킹의 지원을 받아 국내외 포켓 당구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베스트마킹과 전남당구연맹은 또 이번 후원협약식을 계기로 상호 성장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안용석 베스트마킹 대표는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인재 중흥의 정신을 바탕으로 32년간 다양한 산업분야에 모든 마케팅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왼쪽부터 조호석 전남당구연맹 회장, 서서아, 장문석 선수, 안용석 베스트마킹 대표.

전남도체육회 제공

업체로서 인재중흥의 정신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최대 포켓선수들을 후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조호석 전남당구연맹회장은 "전남당구연맹도 베스트마킹 업체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선수들도 실력으로 보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국내외 대회서 맹활약

펜싱 유단우 난징월드컵 銀우수 김민수 태극마크 획득 스쿼시 양연수 선수권 금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이 최근 국내외 대회에서 맹활약하며 전남체육의 위상을 높였다.

전남도청 펜싱팀 유단우(27)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중국 난징에서 열린 국제펜싱연맹(FIE) 월드컵 여자 에페 단체전에 최인정(계룡시청), 송세라(부산시청), 이혜인(강원도청)과 함께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에페 대표팀은 16강전에서 루마니아를 40-31, 8강전서 홍콩을 44-35로 각각 이기고 4강에 진출했다. 4강서 폴란드에 기권승을 거둔 여자 에페 대표팀은 결승에서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에 35-45로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펜싱 유단우



스쿼시 양연수

유단우는 이번 은메달로 지난달 스페인 바르셀로나 월드컵에 이어 2연속 국제대회 입상 성적을 거뒀다.

전남도청 우수팀 김민수(25)는 지난 24-27일 충북 보은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35회 회장배 전국우수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산타 -60kg급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하며 생애 첫 태극마크를 탈았다.

김민수는 8강에서 신희성(충남체육회)을 2-0으로 꺾은 뒤 준결승서 배진범

(서울시설공단)을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선 조성현(경남체육회)에게 부상기권승을 거뒀다.

장민규(29)는 태극권전에서 19.37점을 획득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김영준(28)이 남권전에서 27.34점을 얻어 3위를 차지했다.

전남도청 스쿼시 양연수(32)는 지난 23-26일 경북 김천스쿼시장에서 열린 제19회 대한체육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에서 여자일반부 개인전 정상에 올랐다.

양연수는 16강전 경남체육회 최유라(3-1 승), 8강전 울산시체육회 류보람(3-0 승), 4강전 인천시체육회 엄화영(3-2 승)을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양연수는 결승서 광주시체육회 김가혜를 상대로 3-0 승리를 거두고 1년 만에 이 대회 정상을 탈환했다.

최동환 기자